

동아프리카공동체 추진 현황과 전망

전혜린 구미·유라시아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hljeon@kiep.go.kr, Tel: 3460-1116)

차 례 ●●●

1. 서론
2.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투자환경
3. 동아프리카공동체의 부문별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효과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 5개 회원국간에 △ 통합의 내용과 속도 △ 회원국 간의 군사개입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케냐, 우간다, 르완다는 3개국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수단을 끌어들여 향후 협력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와 부룬디는 DR콩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정치·외교적 차원에서는 내정간섭주의(interventionist) 기조를 채택하고 있는 EAC 회원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케냐의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 ▶ 2001년 설립된 EAC는 초기 10년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발족시키며 △ 무역 활성화 △ 자원·인프라 공동 개발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화동맹 설립 단계로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음.
 - 2005년 관세동맹이 발족됨에 따라 역내 관세 철폐 및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EAC 회원국간의 교역은 2005년 11억 2,000만 달러에서 2012년 24억 7,000만 달러로 증가함.
 - 2012년 12월 EAC 회원국은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자원·전력 부문 등에 대한 인프라 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발족한 공동시장의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화동맹 설립 논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목표달성 시한이 당초 2012년에서 2023년으로 재조정됨.
- ▶ 그럼에도 불구하고 EAC는 이미 지역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해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 아프리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EAC 회원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EAC의 통상정책과 자원·인프라 개발계획 및 EAC 장기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세율 및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1. 서론

■ 최근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 EAC)¹⁾ 5개 회원국(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간에 △ 통합의 내용과 속도 △ 회원국간의 군사개입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음.

- 케냐, 우간다, 르완다는 3개국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수단을 끌어들여 향후 협력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탄자니아와 부룬디는 DR콩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케냐, 우간다, 르완다 3개국은 2013년 10월 자발적 협력체계(coalition of willingness)를 출범하고 △ 남수단을 포함하는 단일 관세지역 설립 추진(2013년 10월) △ 단일 관광 비자 발급 실시(2014년 1월) △ 우간다 Hoima 유전 지역 내 정제시설 및 송유관 건설 추진(2014년 4월) 등의 안건을 탄자니아와 부룬디를 배제한 채 3개국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탄자니아는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DR콩고 동부지역 무장 반군세력과의 평화협상을 둘러싸고 르완다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편 남수단 내전 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우간다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케냐의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단일 비자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 보안문제, 비자 수수료 분배 문제, 데이터 교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EAC 조약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지역통합 추진을 주장함.

■ 2001년 설립된 EAC는 초기 10년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을 출범시키며 △ 무역 활성화 △ 자원·인프라 공동 개발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통화동맹 설립 단계로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음.²⁾

- 2005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이 관세동맹을 발족하였는데, 여기에 르완다와 부룬디가 2007년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5개국간의 공동시장이 출범함.
- EAC는 그동안 통합의 내용과 속도 면에 있어 아프리카 지역공동체 가운데 가장 강한 결속력과 추진력을 보여 왔으나 통화동맹 창설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그 구심력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단일 통화체제 및 중앙은행 도입의 목표달성 시한이 당초 2012년에서 2023년으로 재조정됨(표 1 참고).
- 아프리카 국가의 지역통합 시도는 범아프리카주의³⁾의 영향을 받아 1980~90년대에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 회원국 경제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한 교역상품의 상호보완성 결여 △ 신생 독립국의 주권 수호 및 권력 의

1) 영국 식민지 독립 이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에 의해 1967년 설립된 동아프리카공동체는 1977년 회원국간의 경제정책 기조와 정치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해체된 바 있으며, 이후 2001년 재출범함.

2) EAC 조약(1999년)상의 EAC 지역통합 추진계획은 2005년 관세동맹, 2010년 공동시장, 2012년 통화동맹, 2015년 정치연합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이 계획은 회원국의 언론과 전문가로부터 비현실적이고 야심적이라는 지적을 받음.

3)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는 아프리카의 독립과 주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1945년 범아프리카 회담 개최를 계기로 확산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이후에는 주요 논제가 아프리카 국가간의 정치적·경제적 통합 이슈로 전환됨. 아프리카 지역통합 시도의 배경에는 범아프리카주의의 영향 외에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있음.

지로 인한 지역통합 추진의 제약 △ 회원국 정부간의 불화 등의 이유로 다수의 공동체가 지역통합 추진을 중단한 상태임.

- 통화동맹 창설 추진계획은 최종목표인 단일 통화체제 및 중앙은행 도입 외에도 △ 자국통화 결제 서비스 도입 △ 은행법과 규제 수렴 △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조화 △ 공동 환율정책 도입 등의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마지막 단계인 정치연합은 연방정부의 설립과 단일 대통령 선출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음.

표 1.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의 지역경제통합 추진현황⁴⁾

지역공동체	설립 (년)	규모			추진 단계				비고
		인구 (명)	GDP (억\$)	회원 수	자유무역특구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동맹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OWAS)	1975	3억 4천만	4,069	15	2004년 발족	2009년 협상 개시	2020년 (예정)	2020년 (예정)	- 서아프리카통화 지역(WAMZ)과 UEMOA 통합을 통한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구역 설립
중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CCAS)	1983	1억 4천만	2,206	10	2004년 발족	2008년 (미달성)	계획 무	계획 무	- 군사안보 기능 에 치중 - 최종목표는 공 동시장 설립
아랍마그레브 연합(AMU)	1989	9천만	3,544	5	2000년 예정 (미달성)	2000년 예정 (미달성)	계획 무	계획 무	- 논의가 중단된 상태임.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	4억 3천만	6,211	19	2000년 발족	2009년 발족 (관세율 0~25%)	2015년 (예정)	2018년 (예정)	-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ADC)	1996	2억 8천만	7,010	15	2008년 발족	2010년 (미달성)	2015년 (예정)	2018년 (예정)	- 남아프리카관세 동맹(SACU) 과 의 통합 추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2001	1억 5천만	847	5	2005년 발족	2005년 발족 (관세율 0~25%)	2010년 발족	2023년 (예정)	- 남수단의 가입 여부 2014년 4 월에 결정 - 최종목표는 정 치적 통합

주: 1) 지역공동체의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정렬함.

2) 음영은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달성 현황을 나타냄.

자료: 필자 작성.

4) 1945년 프랑스 식민지하에서 설립된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과 ‘중앙아프리카국가통화연합(CEMAC)’은 아프리카 국가의 자조노력으로 추진된 다른 지역공동체와 구별되므로 [표 1]에 포함하지 않음.

2.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투자환경

■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은 2000년대 후반 유·가스전 발견⁵⁾에 따른 자원·인프라 투자 확대로 연평균 5%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아프리카 투자처로 부상 중임.

- EAC는 인구 1억 5,000만 명, GDP 총액 847억 달러 규모의 경제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임(표 2 참고).
- 특히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자원의존도가 낮고 산업 다각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환경 순위 면에서도 아프리카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주변국으로의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아 투자 여건과 매력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

표 2. 동아프리카 국가의 거시경제지표(2013년)

국가		경제성장(억\$, %, \$)			재정지표(GDP대비 %)		대외거래지표(GDP대비 %, 백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구 (백만 명)
		명목 GDP	실질GDP 성장률	1인당GDP (PPP)	재정수지	정부부채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보유 고		
E A C 회 원 국	케냐	443	4.8	1,780	-2.7	49.4	-20.7	-7.8	5,711.0	5.4	42.7
	탄자니아	326	7.1	1,542	-5.3	42.5	-17.4	-14.9	3,541.3	8.5	47.7
	우간다	232	5.9	1,420	-1.8	32.0	-11.8	-12.0	3,120.0	5.0	35.6
	르완다	74	5.6	1,323	-2.8	24.6	-19.6	-11.6	771.0	5.7	11.3
	부룬디	26	4.4	627	-1.7	32.8	-23.8	-15.8	307.2	10.0	8.7
에티오피아		412	7.1	1,192	-2.8	22.5	-18.0	-6.4	-	7.2	86.5
남수단		-	24.7	-	-9.0	20.4	-2.5	-14.9	-	2.8	10.4
사하라 이남		-	5.0	-	-3.1	33.9	3.0	-4.0	-	6.9	898.2

주: 1) 재정수지는 무상원조자금을 포함한 수치임.

2) 인구는 2012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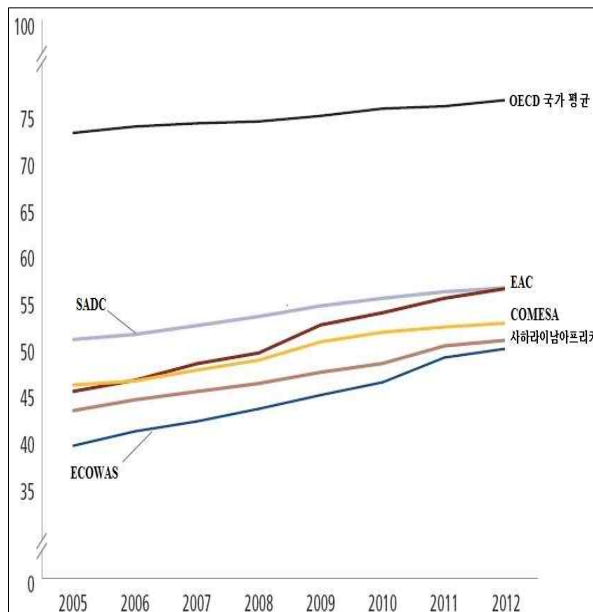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13); African Economic Outlook(2013); EIU Country Report(2014년 4월).

■ EAC 회원국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역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해온 결과 총 74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혁을 단행함.

5) 2000년대 후반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유·가스전으로는 2006년 우간다의 Bunyoro 유전, 2010년 케냐의 Turkana 유전, 2010년 탄자니아의 해상가스전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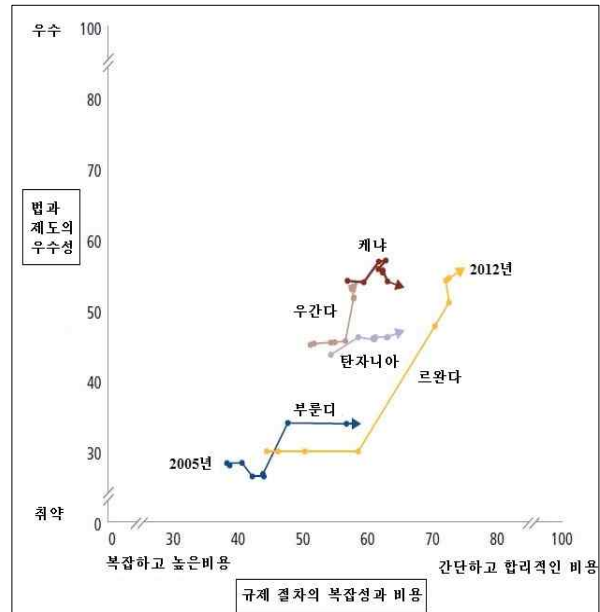
- 개혁이 단행된 주요 부문은 창업(11건), 소유권 등록(9건), 건축 관련 인·허가 취득(8건) 등임.
- EAC 회원국의 평균 기업환경 순위는 117위(2013년 기준, 전체 185개국)로 OECD 평균(29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여타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의 순위⁶⁾와 개선 속도에 비교하면 EAC의 제도·규제 개혁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그림 1 참고).
- EAC 회원국 가운데 르완다와 부룬디의 기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었으며,⁷⁾ 특히 규제 절차의 비용절감과 복잡성 완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그림 2 참고).

그림 1. 아프리카 지역공동체별 기업환경 순위 변화 추이



주: 전체 185개국의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임.
자료: Doing Business in the East African Community(WB 2013, p. 6)

그림 2. EAC 회원국의 제도적 투자여건 변화



주: 전체 185개국의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한 지표임.
자료: Doing Business in the East African Community(WB 2013, p. 8)

■ 유·가스전 발견에 따른 자원·인프라 투자 확대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EAC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 투자(FDI) 유입액은 2003년 5억 9,500만 달러에서 2012년 38억 4,700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음(그림 3 참고).

- 이러한 FDI 규모 증가 속도는 동아프리카 여타 국가⁸⁾뿐만 아니라 서부·중부·아프리카 지역과 비교해서도 빠른 수준임.

6) 2013년 기준 SADC는 116위, COMESA는 128위, ECOWAS는 151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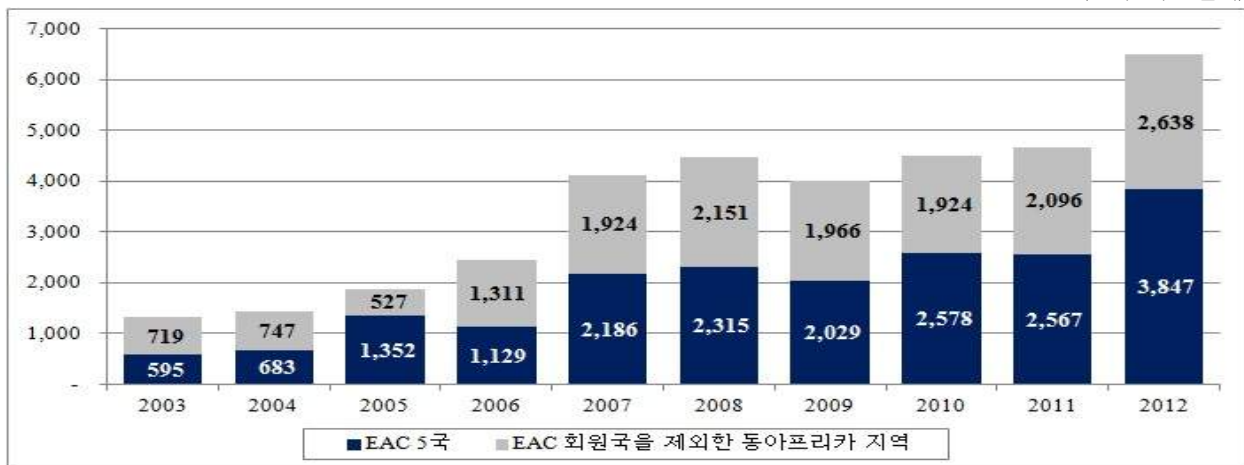
7) EAC 회원국의 2013년 기업환경 순위는 르완다 52위, 우간다 120위, 케냐 121위, 탄자니아 134위, 부룬디 159위임.

8) UN 기준 EAC 회원국을 제외한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소말리아 8개국임.

- 같은 기간 서부·중부·남부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FDI는 각각 33억 6,900만 달러 → 169억 1,700만 달러, 26억 7,100만 달러 → 98억 3,800만 달러, 12억 8,300만 달러 → 54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함.
- 한편 EAC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FDI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자원이 풍부한 중서부아프리카와 아프리카 경제대국인 남아공⁹⁾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에 비해서는 여전이 작은 수준임.

그림 3. 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 Database(<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accessed April 29, 2014).

3. 동아프리카공동체의 부문별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효과

가. 교역

■ 2005년 관세동맹이 발족됨에 따라 EAC 회원국은 역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함과 동시에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EAC Common External Tariff)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관절차, 원산지 규정,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행을 통일하였음.

- 관세동맹의 목적은 △ 회원국간의 호혜적인 무역규칙에 따른 역내 자유무역 촉진 △ 역내 생산 효율화 도모 △ 외국인의 역내 투자 촉진 △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다각화 등임.

○ 또한 EAC는 대외적으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3자 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창설을 논의 중임.

- EAC의 역내 관세는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여 케냐의 수출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9) 2012년 기준 남아공의 GDP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체 GDP의 29.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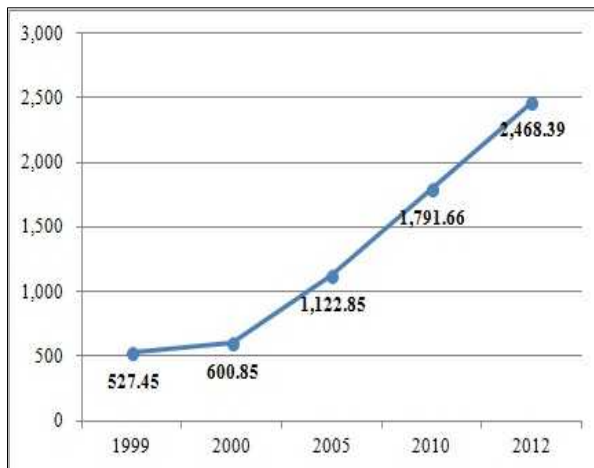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은 원자재 0%, 중간재 10%, 완제품 25%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EAC 회원국간의 교역은 1999년 5억 3,000만 달러에서 관세동맹이 발족된 2005년 11억 2,0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4 참고).

- 특히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부룬디와 르완다의 대(對)EAC 회원국 교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함(그림 5 참고).
- 부룬디의 전체 교역에서 대EAC 회원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7%에서 2012년 21.8%로, 르완다의 경우 22.4%에서 29.8%로 증가한 반면, 케냐와 탄자니아의 경우 각각 10.8% → 8.7%, 8.3% → 7.1%로 감소함.
- 역내 관세 인하 및 철폐와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 적용으로 발생한 교역창출효과와 교역전환효과가 역내 교역 활성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⁰⁾

그림 4. EAC 역내 교역량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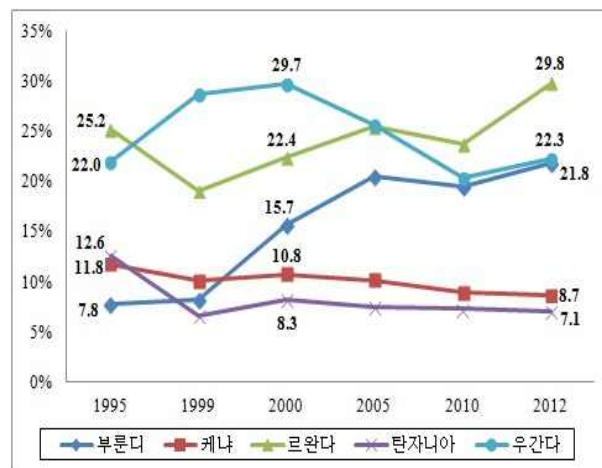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MF DOT.

그림 5. EAC 회원국의 역내 무역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IMF DOT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한편 EAC 회원국의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 Index)¹¹⁾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10) 교역창출효과(trade creation)는 관세동맹 체결 이전 자국에서 생산·소비하던 제품을 관세인하로 인해 역내 회원국에서 수입함에 따라 신규교역이 창출되는 효과인 반면, 교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는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제품을 관세 인하 철폐로 인해 역내 회원국에서 수입함에 따라 수입국이 전환되는 효과임.

11) 무역결합도(Trade Intensity Index)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입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산출방법은 (국가 A와 국가 B 간의 교역량/국가 A의 전체 교역량) ÷ (국가 B의 전체 교역량/세계 전체 교역량)임. 무역결합도가 1보다 크면 교역상대국에 대한 의존도가 세계시장에서의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측정됨. 2012년 기준 EAC 회원국의 무역결합도는 49.0~735.4

여전히 높은 상호의존도 수준을 보이고 있음(표 3 참고).

- 르완다와 우간다(735.4), 르완다와 부룬디(419.5), 부룬디와 우간다(377.5) 사이의 교역의존도가 높음.

표 3. EAC 회원국의 무역결합도(2012년)

무역결합도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케냐	118.1				
르완다	419.5	200.3			
탄자니아	167.4	86.4	111.2		
우간다	377.5	261.4	735.4	49.0	

자료: IMF DOT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EAC 역내 주요 교역품은 농산물이지만,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교역품목이 석유제품, 화학제품, 시멘트, 건설자재 등으로 다양해짐.
- 케냐와 탄자니아의 경제구조가 다각화된 결과 회원국의 수출품목 경합성이 감소하고 상호보완성이 제고됨.

■ 향후 공동시장 발족이 실효성을 거두게 되면 역내 교역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EAC 공동시장협약은 원칙적으로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의 이동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역내 상품 및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 자본 및 노동력 이동 자유화를 위한 회원국의 국내 제도 및 법규의 상호간 조화 등 역내 무역 자유화를 방해하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함.
- 그러나 각 회원국은 국내 공공정책 및 안전, 보건 등의 사유로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어, 단기간 내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

나. 인프라 · 자원 개발

■ 2012년 12월 EAC 회원국은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과 자원 및 전력 부문에 대한 인프라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결정함.

■ 교통부문의 주요 공동사업으로는 △ EAC 5개국 종합철도건설 프로젝트¹²⁾ △ 라무항 종합개발사업(Lamu

수준임(표 3 참고). 참고로 2008년 기준 ASEAN 회원국의 무역결합도는 0.04~50.9, COMESA 회원국은 0.00~517.8 수준임(Junichi Goto 2012.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frica Diversity or Economic Conformity*. JICA Research Institute).

12) EAC는 2009년 5개 회원국을 연결하는 ‘동아프리카 철도 마스터플랜(East African Railway Master Plan Study)’을 수립하였으나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옴.

Port South Sudan Ethiopia Transportation, LAPSSET) 등이 있음.

- 2013년 1월 총 7,636km를 잇는 290억 달러 규모의 EAC 5개국 종합철도건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었으며, 2013년 11월 몸바사-나이로비 구간(500km) 철도건설 기공식을 개최함.
- 2012년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중국·인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아프리카철도개발청 신설이 결정되면서 2009년 수립된 '동아프리카 철도 마스터플랜'이 추진력을 얻게 됨.
- 2020년까지 '다르에스살람-이사카-키갈리'와 '몸바사-나이로비-키갈리' 구간을 포함한 역내 총 14개 주요 철로를 신설해 내륙지역인 르완다·부룬디·남수단을 연결하고(그림 6 참고), 기존 철로를 표준궤로 개량하여 최소 80km/h 속도로 운행하는 철도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임.
-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물류비용 감소와 운송시간 단축, 물동량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철도교통이 역내 물류 이동의 70%가량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 케냐가 주도하는 LAPSSET 프로젝트는 케냐-남수단-에티오피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송유관, 정유시설, 리조트 등 7개 핵심부문의 건설·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2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그림 7 참고).
- 케냐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2018년까지 GDP의 6% 또는 정부 예산의 16%를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주요 투자자임.
- 케냐는 탄자니아와 함께 동아프리카 지역의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기능해왔는데,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역내 케냐 몸바사항으로의 집중도 및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6. 동아프리카 철도종합개발 계획 지도



자료: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Accessed April 15, 2014)을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그림 7. LAPSSET 프로젝트 계획안



자료: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Accessed April 15, 2014)을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 자원 및 전력 부문 프로젝트로는 △ 우간다 호이마(Hoima) 및 분요로(Bunyoro) 유전 개발 사업 △ 탄자니아·르완다·부룬디 3국간의 루수모(Rusumo) 폭포 수력발전 프로젝트 △ 탄자니아 키위라(Kiwira) 석탄광산 공동투자·발전(發電) 사업 등이 있음.

- 특히 우간다의 호이마 유전개발 사업은 자금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케냐·우간다·르완다 3개국간 협력으로 2014년 2월 중국(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과 프랑스(Total), 아일랜드(Tullow)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함.

4. 전망 및 시사점

■ EAC 회원국간의 정치·외교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역내 지역통합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EAC 회원국의 △ 비관세 장벽 △ 지역공동체 중복 가입은 EAC 추진 계획과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번 자발적 협력체계(Coalition of Willingness)의 출범은 지역통합의 정치적·경제적 우선순위를 둘러싼 회원국간의 의견차로 빚어진 결과임.
 - 케냐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및 역내 패권 확대 의지와 내륙국(우간다·르완다)의 지리적 접근성 향상 의지가 일치함에 따라 3국간의 자발적 협력체계가 출범하였음.
 - 반면 케냐의 역내 시장 지배력 확산을 경계 중인 탄자니아는 3국의 빠른 통합 추진 속도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도 내정간섭주의(interventionist) 외교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케냐, 우간다, 르완다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 EAC 회원국은 관세동맹 설립 이후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각국의 무역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 통관절차 △ 기술 장벽(표준 및 인증 기준의 불일치) △ 원산지 규정 △ 화물 최대 적재량 관련 도로법¹³⁾ 등이 이에 해당하며 △ 열악한 교통 인프라 △ 법적·제도적 인프라의 취약성 등은 교역비용을 증가시키며 공동시장의 실질적 이행을 어렵게 함.
- 또한 EAC 회원국의 지역공동체 중복 가입도 EAC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EAC 회원국은 EAC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공동체에도 중복 가입 중인데, EAC 차원의 공동정책과 협약이 다른 지역공동체의 결정사항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함.
 - 케냐와 우간다는 EAC 이외에도 COMESA와 IGAD(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에 가입하고 있으며, 르완다와 부룬디는 COMESA와 ECCAS의 회원국이며, 탄자니아는 SADC의 회원국임.

13) 케냐의 트럭당 최대 적재량은 54톤, 탄자니아는 56톤, 우간다는 45톤, 르완다와 부룬디는 58톤으로 상이하여 역내 육로무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EAC의 지역통합 추진이 일정 성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이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어 EAC의 분열 혹은 해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됨.

- 1967년 설립된 동아프리카공동체는 1977년에 해체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비해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 및 정치적 이념의 대립이 완화되어 회원국간의 유사성 및 상호의존성이 제고되었으며, 역내 내륙국인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는 중계무역항 다각화를 위해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임.
- 탄자니아 정부는 3국이 통합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점을 경계하고 있으나 EAC의 지역통합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부룬디는 2014년 2월 3국간 회의에 이미 옵서버로 참석하며 관심을 나타냄.

■ 한편 우리 기업은 아프리카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EAC 회원국에 진출하기 위해 EAC의 통상 정책과 자원·인프라 개발계획 및 EAC 장기 로드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EAC의 역외 무역에 대한 공동관세율 변화와 비관세장벽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반영한 대EAC 회원국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EAC 차원의 자원·인프라 개발계획 및 공동투자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동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EAC 지역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KIEP